

구라보 - 솜 염색사 생산, 다시 시작

구라보는 “가가와(香川)”현의 “마루가메(丸龜)” 공장에서 수년 전부터 다시 솜 상태에서 염색하여 뽑은 실을 생산하는 전용 라인을 만들고 양말 소재 등으로 몇몇 고객에게만 공급해 주고 있다.

구라보는 과거에도 솜 염색사를 생산하였는데, 이번에 다시 판매하기 시작한 솜 염색사는 예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뽑은 실로서 “과거의 것과는 다른 표정의 실”이다. 솜 염색은 구라보의 전속 공장에서 가공하고 있는데 “양적으로는 아직 크지 않지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”고 한다. ♣